

인류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구세주

여러 각도로 보아서 틀림이 없는 존재라야, 틀림없는 구세주라야 구세주지 어느 각도에서는 가짜 같고 어느 각도에서는 진짜 같고 하면 가짜예요. 아시겠어요?

구세주는 웃음을 준다

구세주라는 사람은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죠? 항상 웃으라고 그러죠?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미국에 있는 이상구 박사가 말했는데 그 사람이 겨우 안다는 게 엔돌핀이 나오는 것만 알았지 웃으면 무엇이 변해가지고 엔돌핀이 나온다는 걸 말해 보았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근본을 모르는 거죠? 근본을 논할 정도라면 사람의 경지를 넘어선 신이 아니고서는 그 근본을 논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웃으면 피가 변한다 하는 이러한 말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피가 변한다는 것을 일찍이 말을 했죠? 웃으면 웃는 피로 변하죠? 마음이 편안하니까 웃는 거죠? 그래서 웃으면 하나님의 피로 변한다는 말이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승리제단 나오면 꼭 영생을 얻게 되어있어요. 승리제단 나오지를 맡아가지 승리제단 나오면 꼭 영생을 얻는데 죄만 안 짓는다면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구세주가 해결해주죠? 죄를 해결해 주는 게 구세주이지 의인을 찾는 것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죄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이 사람이 논해주죠?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용서해 달라는 간절한 애끓는 심정이 있어야 구세주가 사해주고 씻어주는 거지 그냥 이제 씻어주겠다 하고 해서 씻어줄까? 안 씻어줘요. 죄를 씻으려면 힘이 들기 때문에

간절히 애원을 해야 씻어주는 거지 간절히 애원하지 않으면 씻어주지 않아. 그리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두 번 다시 죄를 안 지어야 그때야 비로소 용서해 주고 씻어주는 것이지 그대로 그 뻔뻔스러운 얼굴과 뻔뻔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구세주가 안 씻어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세주가 하라는 대로 해야 이뻐서 해주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걸 씻어줄까? 안 씻어주죠? 여러분들 늘 병글병글 웃으라고 그랬죠?

인간은 어떻게 해서 생겼나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사람이 되었는지 근본을 알아야 그 근본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 근본을 몰라가지고는 근본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정도령이라는 사람은 천지개벽하러 왔어요. 천지개벽이라는 거는 뭐냐? 근본으로 돌아가게끔 뒤집어 엎는다 그 소리에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사람이 된 그러한 근본 학문을 알아야 되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고 있죠? 선악과가 무엇인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육천년간 안 사람이 없죠?

이 사람이 누가복음 8장에 말세가 되기까지 믿음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사이버 종교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래 안 그래? 말세까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말세가 언제인가? 말세라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 것으로 명명구리 사이버 종교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마귀 세상이 끝나고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때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건 끝 말(末)자 세상 세(世)자니까 마귀 세상이 끝난다, 죽는 세상, 죽음이



구세주 조희성님

여지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죽음이 없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죄인도 죽을 수가 없어. 그때부터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미안하지만 이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야. 이제그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속에 구세주가 분신으로 들어가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고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쓰여 있었어요. 묵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또 묵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는 생명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바로 영생을 하는 자요 이기는 자가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긴자를 모셔야 그 마음이 성전이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일반교회에서 알아? 사이버 종교가 되어서 몰라요.

마귀가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들어와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마귀의 영이 되는 선악과가 들어와서 -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야. 인간들이 깨달을까봐 선악과를 먹었다고 표현을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구세주는 그 실체를 아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체영인 양심의 영을 주체 영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체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주인이 마귀가 된 거죠? 마귀가 되니까 바로 마귀의 형상으로 변한 거예요. 전에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마귀 형상으로 변한 것이 사람이예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마귀라는 것을, 바로 학문의 근본을 여러분들에게 논하고 있죠? 이런 근본이 격암유록이나 불경이나 이런 데 쓰여 있었어요. 몰라서 못써요. 구세주라야 그 모든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함을

찾아가야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고향을 동경하는데 인간의 고향은 바로 천국이에요. 하늘나라를 동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늘나라 가고 싶어하고, 누구든지 천당 가고 싶어 하지 지옥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지구 땅 위에는. 아무리 못된 죄를 지어도 천당 가고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못된 죄를 지어도 죽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죽기를 왜 싫어하느냐? 원래 인간의 본고향인 하늘나라에서 죽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살아본 경험 있는 피가 인간 속에 흐르고 있어요. 인간 속에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죽기를 싫어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고 기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웃는 사람은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주체영이 되어가지고 웃을 수 없도록, 기뻐할 수 없도록 요렇게 요렇게 가시로 찔러가지고 괴로움을 주어요. 그 괴로움을 주는 마귀를 이기려고 계속해서 웃으면 마귀가 죽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웃는 것이 피만 맑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 죽이는 무기라니까, '박멸소탕' 하고 기도하면 곧바로 마귀를 죽이는 거지만 평상시에는 늘 웃고 다니면 사자귀신이 불을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웃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고 병이 걸리지를 않아. 그러기 때문에 신문에 암도 낫고 웃으면 보약이고 건강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실한 것을 아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 죽지 않는 방법이 웃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이 세상에 학문이 없다는 말이 진짜야, 가짜야? 죽지 않는 방법의 학문이 웃는 건데 아주 쉬운 건데, 웃는 게 쉽죠? 폭소를 하루에

몇 번씩 하는 사람은 십 년 이십 년 수명이 늘어나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기 때문에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웃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학문의 근본을 매일 논하고 있죠? 사람의 주체 영이 마귀 영이요 사람의 주체 영이 선악과요, 사람 속에 양심이 하나님의 영이요 양심이 생명의 영이예요.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이 존재하는 거지 생명의 피가 없다면, 하나님의 피가 없다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죽을 때 마귀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영이 어디 있냐? 나라는 의식이야. 먼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내가 마귀야, 사자귀신이야. 나라는 의식이 붉은 용 마귀야. 그래서 붉은 용 마귀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 하고 밀실에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해와 이긴자가 붉은 용 마귀가 나라는 것을 몰랐어요. 완성자가 되기 전에는 모르게 되어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완성자라는 건 참 기가 막힌 존재예요. 이 사람이 자신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고로 이 사람의 실체는 이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에도 갈 수 있고, 이북에도 갈 수 있고, 김일성이 옆에 가서 말도 할 수 있잖아. 아시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대로 우리 제단에 온가족이 나오는 식구가 있는데 그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온 식구가 다 나오면, 온 식구가 구원을 얻으면 조상대대로 다 구원 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복이면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에 대한 엄청난 효도가 되는 거죠? 엄청난 효도가 되는 거예요.*

2000년 10월 6일 설교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4장 요셉》

(6)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다

(6)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다

(지난호에 이어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시는 야곱은 전날에 유다가 요셉을 도단 광야의 구덩이에다가 빠뜨리는데 앞장섰다는 그 자신의 고백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접경에 있는 고센 땅에 거의 당도했을 때,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요셉이 유다를 원수시하고 있다면 그를 죽일 것이요, 이미 형제들의 범죄를 용서했다면 살려서 돌려보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 옆 좌석에 유다를 태우고 고센으로 올라오는 아버지 이스라엘(야곱)을 맞이하려 나왔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야곱이 한참 울다가 눈물을 닦으면서 목멘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셉아, 너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제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때 요셉은 어젯밤 꿈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부친 야곱을 끌어안고 반긴

주신 계시를 떠올렸습니다. "요셉아, 너는 바로에게 가나안에서 온 가족이 고센 땅에서 거할 수 있도록 청하라. 또 가족이 목축을 업으로 하는 목자라고 바로에게 고하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기증히 여기는지라, 너의 형제들과 쉬이지 않으려고 고센 땅을 용납하리라. 고센은 가나안으로 가는 통로이러라. 장례에 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니라." 그리하여 요셉은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말하였습니다. "바로왕께 알현하려 형들을 모시고 궁전에 들어가겠습니다. 바로왕이 '그대들의 생명이 무엇이오?'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여렸을 때부터 즐곤 목축하는 자들이며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을 기르

는 목자들을 기증히 여기는 애굽 사람이 자기 나라 변두리 고센 땅을 우리 가족들에게 가까이 할양할 것입니다." 요셉은 궁전에 들어갈 다섯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 다섯 사람은 자신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열한 형제들 중에 르우벤과 스블론과 단과 납달리 그리고 베냐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택함을 받은 다섯 사람을 보면, 전날에 도단 광야에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릴 때에 르우벤은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밭다고 죽어서야 되나, 피를 흘리는 일만은 안 돼'하고 만류했던 자요, 요셉과 동갑내기인 스블론은 '구덩이 속에 갇힌 요셉이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개에 팔면 어때요?'하고 형들에게 애원했던 자요, 나머지 단과 납달리는 요셉과 함께 레아의 자식들을 찾으러 나선 자요, 그리고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집에 거했던 자로 요셉을 해하는 언의 상관도 없던 자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머지 여섯 형제들은 심중으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생존하는 동안만 우리들에 대한 복수를 미루었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분명히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몰살시킬 것 같아'하고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서 다섯 사람을 애굽 왕에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형제들의 인사를 받고, "그대들의 직업은 무엇인가?"하고 물었습니다. 다섯 형제는, "우리들은 양치는 목자입니다. 가나안 땅이 가뭄으로 뒤덮였습니다. 고센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을 드렸습니다. 바로왕은 선선히 대답했습니다. "아! 언제까지라도 내 땅에서 살도록 하오. 고센의 제일 기름진 땅을 택하여 그곳에서 모두 살도록 하오"

창세기 47장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2절;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왕에게 부친 야곱을 소개하는 요셉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왕은 경우(境遇)에 밝은 총리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궁전으로 모시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의아히 여겼습니다. '아마 불품없는 모양새를 한 시골뜨기 노인이니 요셉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까봐 그의 부친을 소개하지 않았으리라'하고 바로왕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하는 바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일부러 총리 요셉에게 부탁하는 말로 짐짓 떠보았습니다. "가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나에게 소개하십시오. 궁전의

요리를 위해서 키우는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부탁하고 싶소." 요셉은 자기 부친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왕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왕은 나이 많은 야곱을 쳐다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요셉의 부친이 왕자신보다 더 고귀하고 기품이 넘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왕은 노인 야곱을 공대하고 또 축복하며 물었습니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 년 하고도 삼십 년입니다. 나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헛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헛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하고 또 바로왕의 만수무강을 축복하였습니다. 바로왕은 고센 지역 안에 있는 좋은 목축지 라암셋을 야곱의 소유로 주었습니다.* 안젤라